

핵심주제

- 극동개발부, 제 3회 동방경제포럼 비즈니스 일정 제안 접수
- '극동헥타르' 취득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에 60억 루블 투입
- 극동에 신규 선도개발구역 2개 조성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7년 2월 21일, Izvestiya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동방경제포럼이 매회 더 흥미롭고 더 알차게 조직되기 위해 노력»

부총리는 제1회 포럼이 극동의 투자공간을 개방하였다고 밝혔다. 제2회 포럼에서는 극동에서 1차적으로 추진된 투자프로젝트들을 발표하였고 신규 선도개발구역들을 선보였다.

«제3회 포럼에서는 프로젝트 책임자들이 직접 발표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말 들어 70개 이상의 신규 기업이 들어서게 됩니다. 기업들의 대표들이 선도개발구역 내 활동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와 가스, 도로, 전력선을 제때 연결해 주었는지에 대해 발표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공적이고 실존하는 프로젝트 만큼 좋은 예가 없습니다. 그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실례를 대체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극동헥타르 취득자들에게도 발표할 기회를 줄것입니다.»라고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밝혔다.

<http://izvestia.ru/news/666236>

2017년 2월 20일, RIA News

이란, 동방경제포럼 참석의향

안톤 코바코프 러시아대통령 고문과 메흐디 사나이 주러이란대사의 면담에서 2017년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국제 행사들에 이란측 참석이 논의되었다. 양측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공식 일정의 일부로 공무원, 사업가,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러시아-이란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원탁회의를 조직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사나이 대사는 2017년 동방경제포럼 행사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https://ria.ru/economy/20170220/1488353498.html>

2017년 2월 3일, 러시아 극동개발부

극동개발부, 제 3회 동방경제포럼 비즈니스 일정 제안 접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9월 6-7일간 열리는 2017동방경제포럼 비즈니스 일정 주제 구성, 행사 조직 및 진행에 대한 제안들은 포럼 공식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포럼 주요 주제 구성을 형성하는데 러시아 및 해외 사업가들, 지역 사업계, 분야별 연합, 사회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

«포럼은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 대중, 전문가들의 모든 제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장관이 밝혔다.

http://minvr.ru/press-center/news_minvostok/?ELEMENT_ID=4999

극동 국가정책

2017년 2월 17일, Lenta.ru

'극동헥타르' 취득자들에게 저금리 대출 약속

극동개발기금이 대출 지원을 위해 60억 루블 예산이 책정하였다. 대출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취득한 부지 개발목적으로만 지급된다.

토지 취득자들은 연 8~10%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토지 개발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건설을 위한 통나무, 소형 농기계 또는 온실자재 등이다. 2017년 봄부터 시범단계로 토지취득자들을 위한 대출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이다. <https://lenta.ru/news/2017/02/17/foreast>

2017년 2월 13일, EastRussia

레오니드 페투호프, 극동투자유치청장에 임명

2015년에 설립된 극동투자유치청의 주 목표는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새 입주기업들을 유치하고 극동 프로젝트들에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극동투자유치청의 과제는 모든 투자자들이 프로젝트 추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청장으로 임명되기 전 레오니드 페투호프는 여러 러시아 및 해외 기업에서 경영진으로 일하였다. 주로 광산업, 야금업, 농업 분야에서 경영 컨설팅 및 직접투자유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http://www.eastrussia.ru/news/novym-generalnym-direktorom-agentstva-dalnego-vostoka-po-privlecheniyu-investitsiy-i-podderzhke-eksp>

7 февраля 2017 года, РИА «Новости»

일본, 러시아와 공동으로 쿠릴열도 활용 협의회 결성

새로이 결성된 협의회 의장은 대러경제협력의 발전을 담당할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이 맡았다. 또한 일본 여러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협의회 구성원이 되었다. 첫 회의에서 남쿠릴 어업, 수산물 채취, 관광 분야에서의 러시아와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다.

<https://ria.ru/world/20170207/1487313993.html>

극동의 경제

2017년 2월 27일, Vedomosti

'루스아그로'사, 극동 우유공장에 10억 달러 투자 계획

루스아그로는 연해주 우유가공공장 건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루스아그로 그룹 모시코비치 회장에 의하면 유제품은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아태지역 국가들로 수출 전망이 좋은 제품이다. «이웃 국가인 중국에만 해도 연간 2000만톤의 우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제품 생산 분야에서 연해주의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모시코비치 회장이 밝혔다.

<http://www.vedomosti.ru/business/news/2017/02/27/679112-rusagro-moloka>

2017년 2월 20일, RIA News

극동에 신규 선도개발구역 2개 조성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가 의장인 극동 및 바이칼 지역 투자프로젝트 추진 정부분과위원회의 결정으로 신규 선도개발구역들이 조성된다.

'네프테히미체스키' (연해주) 선도개발구역에는 로스네프트 사가 보스토치니 석유화학공단을 조성한다. '스바보드넨스카야' (아무르 주) 선도개발구역에는 대규모 산업체 2개가 조성된다: 가스프롬이 아무르 가스정제공장, 시부르 홀딩이 아무르 가스화학공단을 만들 계획이다. 해당 프로젝트들의 투자비용은 1조 7000억 루블이며 75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https://ria.ru/economy/20170220/1488387008.html>

극동 개발 신규 정책: 성공사례

2017년 2월 9일, Interfax

극동에 총 투자규모 1조 3790억 루블의 500개 투자프로젝트 추진중

유치된 투자비용의 대부분인 1조 2850억 루블은 민간투자이다. «이 수치는 2025년 전에 완성을 계획한 공단, 공장, 인프라, 천연자원 개발 및 가공 단지들을 합친것입니다. 새로운 투자를 통해 극동 경제 구조가 다변화 되고 있습니다. 신규 업체들의 73%는 천연자원개발과 무관한 업체들입니다. 가공업, 물류, 농업, 관광 분야입니다.»라고 갈루시카 장관이 밝혔다.

2016년에 극동 개발 신규 정책을 통해 25개의 신규 업체들이 설립되었다. 2017년에는 이러한 업체들의 수가 50개 이상으로 예상되며 향후 3년간 280개 이상의 업체들이 34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main.asp?id=806569>